

광주시 내년 예산 120억 시민이 직접 꾸린다

‘시민시장 시대’를 선포한 민선 6기 광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120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권한을 시민들에게 내주기 위해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광주 등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민참여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여 소규모 사업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있었지만, 사실상 공무원이 기획한 사업이 대부분인 탓에 ‘무늬만 시민참여’라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추진할 계획인 시민생활과 밀접한 총 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

전국 지자체 첫 편성권 위임 사업비 5억원 이하 사업 내달 30일까지 공모 접수

이디어를 접수받는다. 총 예산 규모는 120억원이다. 행사·축제성 사업,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 계속사업, 국비매칭사업, 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은 제안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광주재정정보란 내에서 시민참여예산제-시민참여예산 사업신청서를 다운받아

접수하거나 광주시 예산담당관실에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민이 제출한 모든 제안은 소관부서의 사업 구체화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사와 전체회의 투표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은 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6년도 예산에 편성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시민참여 예산제’가 사업 기관에서 이미 요구한 예산을 자문하는 수준에 그치고 시민이 원하는 소규모 사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예산 120억원

을 시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외부 공모 위원을 20명 늘려 총 100명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공개 모집 중이다. 민간위원 임기는 5월1일부터 2년이다.

민진기 광주시 예산담당관은 “시민참여 예산사업 공모를 통해 시민이 직접 사업 제안부터 선정까지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진정한 의미의 시민참여 시책을 실현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민들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세계수영 선수촌 건립 부지 선정 도심 균형 고려해야 광주시의회 토론회

광주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도시 재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재개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광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반재신) 주관으로 열린 ‘도시 재생사업과 연계한 세계수영선수촌건립 선수촌 건립 방안’ 토론회에서 노경수 광주대학교 교수는 “광주의 주택공급 정책은 구도심의 재개발정책과 신도시 개발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도시재생 차원의 재개발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시공학 박사인 박성우 서울프로세스(주) 대표이사는 “구도심의 재개발을 통해 구도심과 신도심의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통해 두 지역이 동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반재신 위원장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해 구도심의 쇠락과 지역경제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2019 세계수영선수촌건립 선수촌 건립 문제를 도시재생 차원의 검토와 도시 활력을 불어 넣는 방향으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봄맞이 나무심기 낮 최고기온이 22.2도까지 올라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19일 광주시 북구청 공무원들과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일곡동 근린공원 산책로 주변에 메타세쿼이아와 이팝나무 등을 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스마트공장 1만개 키워 제조업 글로벌 4강 진입”

무역투자진흥회의...제조업 혁신 13개 과제 선정 추진

정부가 2017년까지 민간 합동으로 총 24조원을 투입해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스마트 제조기술을 개발하는 등 제조업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4년에는 수출 1조달러를 달성하고 제조업 수출 4위를 달성하는 등 이른바 ‘스마트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실행대책으로 4대 분야 13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스마트 공장의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민간 합동으로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공장 1만개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공장 중 3분의 1가량을 IT기반의 생산관리를 갖춘 스마트 공장으로 육성한다.

올해 전자업종(삼성·LG) 120개, 자동차(현대차) 100개, 기계(두산·효성) 50개, 패션(제일모직) 25개 등 8개 업종에서 350

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스마트공장으로 탈바꿈하도록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제조 현장과 결합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미래형 공장이다.

또 2017년까지 사물인터넷(IoT) 등 8대 스마트제조 기술의 연구개발(R&D)에 민간 합동으로 1조원을 투입하고 올해는 200억원 규모의 제조-IoT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2017년까지 어군탐지용 무인기 등의 조기 제품화를 통해 150억달러 규모의 신규 수출을 창출한다. /연남뉴스

대학 진학률 여 75% 남 68% 스마트폰 가입 3년만에 2배로 범죄 감소...성폭행만 26% 늘어

2014 한국사회지표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지난 해 4000만 명을 넘어선데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 절반 가량이 가입했던 유선전화는 가입률이 30%대로 뚝 떨어졌다.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2009년 이후 5년째 남학생을 앞지르고 있다. 전세가격지수가 급등하는 등 주택매매가는 상승하고 성범죄를 중심으로 총 범죄발생 건수도 늘어 대체로 어두운 사회 분위기를 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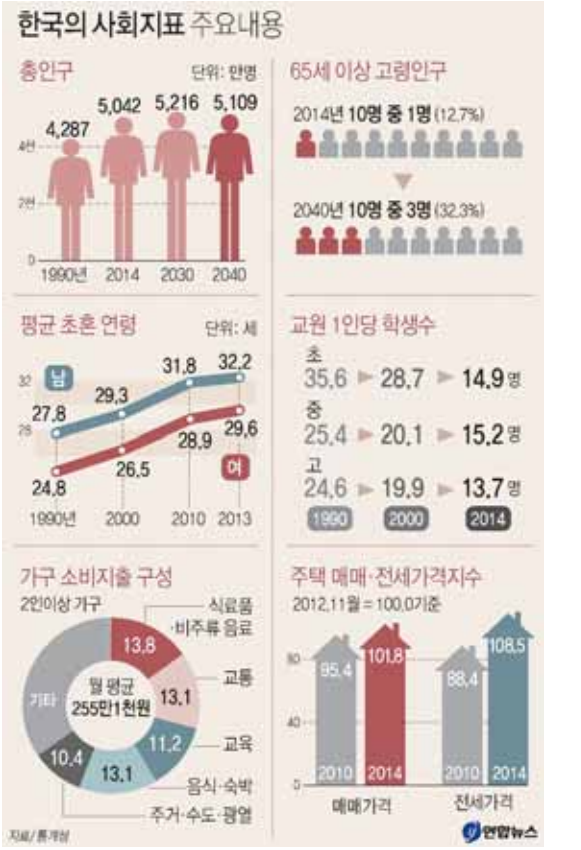
통계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4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스마트폰 보유=통계청이 발표한 ‘201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4056만명에 달했다. 지난 2011년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258만명이었지만, 불과 3년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가입자를 뜻하는 스마트폰 가입률은 2011년 45.4%에서 지난해 80.4%까지 뛰어올랐다.

반면 일반 유선전화 이용자는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 2005년까지만 해도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2292만명으로 가입

매매가격지수는 101.8로 전년(100.1)보다 1.7% 오르고 전세가격지수는 108.5로 전년(104.9)보다 3.4%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의 전세가격지수는 112.5로 1년 전보다 5.19% 올랐다. 2013년의 주택보급률은 103.0%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률은 60.2%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올랐다. 남성 고용률은 71.4%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여성 고용률은 49.5%로 전년보다 0.7%포인트 각각 상



수(47.6%)는 절반에 육박했지만 불과 10년도 안돼 가입자 수는 600만명 가량이 감소한 1694만명이 됐다.

◇대학진학률 여 75%, 남 68%~격차 벌어져=2014년 고등학교 졸업자가 전 문제대, 교육대, 일반대 등 대학에 진학한 비율은 70.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늘었다. 대학 진학률은 2005년 82.1%에 달했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67.6%, 여학생이 74.6%로 1년 전보다 각각 0.2%포인트와 0.1%포인트 증가했다.

대학 진학률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낮았지만, 지난 2009년 남학생 81.6%, 여학생 82.4%로 처음으로 역전된 이후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시 0.8%포인트에 불과하던 남녀 대학진학률 격차는 2012년 5.7%포인트, 2014년 7%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매매·전세지수 전년보다 각각 1.7%·3.4% 상승=지난해 전체 주택의

승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5000명~성폭행 사건 급증=2013년의 총 범죄발생 건수는 200만7000건으로 전년(194만5000건) 대비 3.2% 증가했다. 이중 형법범은 105만8000건으로 전년(103만9000건)보다 1.9% 증가했다.

형법범 중 절도, 살인, 성폭행(강간), 강도 등 주요 범죄 발생 건수는 50만 4000건으로 1년 전보다 1.1% 감소했다.

이들 중 성폭행은 2만6919건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6.1%나 증가했다. 미성년 성적학대(-33.7%), 강도(-23.8%), 살인(-6.1%), 폭행·상해(-4.3%), 절도(-0.8%)는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성폭행 사건은 1995년에 4912건 수준이었지만 꾸준히 늘어나 18년 만에 5.4배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유해매체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남뉴스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울산지점 364-7557